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JEW'S FOR JESUS™

2010년 6월 11권 4호



전쟁의 시간들을 피할 수 없습니다

-David Brickner, Executive Director, San Francisco, USA

근대와 현대 시대 이후 많은 사람들은 개인의 영성 추구를 평화와 초월에 이르는 길로 생각하는 반면, “조직화 된 종교”는 폭력과 전쟁과 같이 엮어 생각합니다. 이 관점은 성경과 전혀 관계가 없고, 오히려 동양 종교 철학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전투, 전쟁, 그리고 싸움은 본래 영적인 것들이며,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들은 그러한 관점에서 볼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전투가 진짜가 아닌 것처럼 행동할 때, 우리는 스스로를 공격과 좌절에 약하게 만듭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사무엘하 11:1)는 성경에 기록된 가장 큰 실패 중 하나를 시작하는 서막입니다. 다윗의 군대는 전투에 나갔지만 왕 스스로는 뒤에서 머물렀고, 그것이 밋세바와 우리아와 함께 낳은 결과는, 왕의 비극적인 실패로 이어졌습니다.

평화의 계절이 있고 전쟁의 계절이 있으며, 전투를 싸워야 할 시간이 있고, 싸움이 가장 격렬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라는 말씀은, 간혹 이루어지는 충고가 아니라, 매일매일 해야 하는 의무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입니다.

간혹 우리는 진짜 전장이 어디 있는지 알아보지 못하고 우리들끼리 싸웁니다. 무엇과 싸워야 할 지 잘 골라야 제대로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짜 전투를 승리하기 위해 해야 하는 것들에서 우리를 멀어지게 하고 낙심케 하는, 작은 충돌들을 거부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습니다 - 우리는 이기기 위해서 그러한 방법으로 싸워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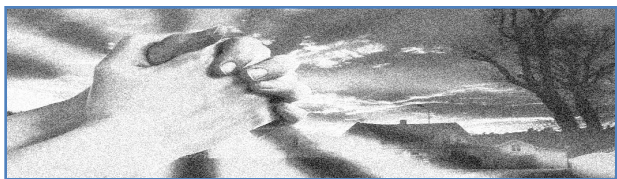
싸워야 할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를 힘있게 만듭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그 거룩한 비전에 초점을 맞추게 합니다. 평소 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듭니다 - 특히 깨어있고, 진정한 용기를 내기 위해서 말입니다. 싸워야 하는 싸움은 동료 전사들을 하나로 뭉치게 합니다. 그들은 바로 이 전투의 성패에 무엇이 달려있는지 잘 아는 이들이지요. 이 전투들은 항상 생명과 영혼을 구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반면, 싸우지 말아야 하는 싸움은 불필요한 고통을 낳습니다. 이 고통은 오해, 실수, 그리고 계산 착오에서 나옵니다. 그러한 싸움들에게서 힘을 얻을 수는 있지만, 그 힘을 자신의 욕망과 치명적인 유혹에 잘못 사용합니다(다윗왕의 예를 다시 생각해보십시오).

더 큰 그림을 보지 못할 때, 우리는 스스로의 약함과 불안정함에 걸려 넘어집니다. 싸워야 할 싸움에서 얻는 명민함과 용기 대신 영적 둔감함을 얻으며, 우리는 이 때문에 크게 두려워 합니다. 특히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잘못된 방법으로 하는 것은 구성원들 사이에 분열을 일으킵니다. 한 사람을 돌보는데 실패하면 수많은 희생자들로 이어집니다.

최근에 저는 세계2차대전을 다룬 TV 드라마 “태평양”을 보았습니다. 첫 전투 장면은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였습니다. 많은 군인들이 죽고 부상당하는 것을 보여주었지만, 살아남은 군인들조차 땀범벅이 고 더러웠습니다; 온 천지가 공포로 가득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전장의 잔인함과, 그들이 보았던 희생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마치 그들은, 단지 몇 시간의 전투 속에서 몇십년의 인생을 모두 보낸 듯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서 그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하듯이 “전쟁은 지옥”입니다. 특히 이 말은 영의 세계에서 싸울 때 사실이 됩니다 - 우리는 사탄의 줄개들과 싸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갑주를 단단히 입고도 우리는 여전히, 우리를 영원히 바꿀 그 전투들에게서 스트레스와 부담을 경험합니다. 이러한 전투들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이 겪었던 고통의 아주 작은 일부분을 견딜 뿐이지요. 예수님께서 셋째마네 동산에서 겪었던 고통을 기억하지요?



우리는 모든 괴로움과 고통에서 보호받아야 한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것은 하나님을 따르면서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영적 전투들과 맞닥뜨릴 때 나오는 결과이며, 이를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과 희생까지 십자가로 가져올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 더 많은 긍휼과 용기를 심어주고, 더욱더 우리를 예수님과 닮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역사는 전투 이야기들로 가득합니다 - 운나쁘게도, 어떤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형제와 자매들이 싸우지 말아야 할 싸움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여줍니다. 누구도 이기지 못하지요. 감사하게도 많은 이야기들은 격렬한 전투들을 기록하고 있으며, 이 전투들에서 왕되신 예수님을 위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사들을 기록한 이야기들을 읽을 때마다 - 성경이나 저드슨, 위클리프, 세인트등의 일대기에서든지 - 그것은 우리 자신의 전투들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이들이 어떻게 싸웠는지 볼 때마다 우리 또한 싸울 수 있도록 능력과 격려를 얻습니다.

십년전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 선교 단체에서 처음으로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캠페인을 열었을 때가 생각합니다. 모든 환경이, 전세계적인 유대인 부흥에 대한 이 중요한 헌신을 대적하는 듯했습니다. 재정적으로 위기가 오고, 오랫동안 같이 일한 사람들이 단체를 떠나고, 개인적으로 실패하고, 혹독한 질병을 겪고; 이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단기간 안에 우리 팀을 쳤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이 모든 사건들의 “우연성”에 대하여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지만, 곧 우리가 매우 중요한 전투에 임했다는 것이 명백하게 보였습니다.

지금 회상해보면,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그 도전들은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 선교 단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우리 선교사들은 점점 목적을 새롭게 깨닫고 서로 연합할 수 있었으며,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였고, 이 사역에 더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성령님께 감사하게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광받으시기까지, 그리고 많은 영혼을 구원할 수 있기까지 이 전투에서 승리를 이어나갔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3년 반 전에, 우리가 “이스라엘 너희의 하나님만 바라라” 캠페인을 처음 시작할 때, 우리는 매우 비슷한 공격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건강에 위기가 왔고, 재정적으로 힘들었고, 개인적으로 많은 혼란이 왔습니다. 이들은 그저 우연으로만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아직도 그 전투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왕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기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에서 우리는 왕되신 주님을 위해서 전쟁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형제 자매들은 이스라엘에서 “샤론 캠페인”이라고 불리우는 전투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Herzilyah, Petach Tikva 그리고 그 주변 도시들의 거리들로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소책자를 나누어주며, 복음이 적힌 깃발을 내걸어서, 이스라엘의 이 지역에서 예수님이 구원자임을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반대하는 이들에게 웃어주기, 미워하는 이들을 사랑하기, 무관심한 이들에게 계속하여 나아가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혼을 맞이 하기 위해 수십번의 거절들을 당하기 - 이것들이 우리 팀원들이 임하고 있는 전투입니다.

우리는 이 캠페인에 이어서 세 개의 캠페인들을 더 가지고 있고, 지금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은 다양한 레벨에서 전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주십시오.

당신은 어떠한 전투들을 싸우고 있습니까? 지금 당신의 환경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이들이 겪고 있는 영적 전쟁과 그 큰 그림에 연관되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싸워야 할 싸움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십시오. 예수님께 눈을 맞추십시오. 그 싸움을 통해 더욱 집중력을 높이고 의지를 강하게 하십시오. 쓸데없는 충동을 피하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음을 기억하십시오 - 정복하기 보다는 사랑으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의 메시야께서 먼저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지부 소식들

브루클린, 뉴욕 Brooklyn, New York

Jeremiah Zaretsky의 보고입니다: 지난 주 저는 하시디즘(신비주의에 가까운 정통 유대교파: 역자 주)을 은밀하게 믿는 이를 방문하는 특별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헨리(가명입니다)를 길에서 만나서 자동차에 태우고 몇 분 동안 갔습니다.

우리는 길가에 차를 세웠습니다. 거기 벤 안의 칙칙한 빛 아래에서 놀라운 광경을 보았습니다: 하시디즘을 믿는 유대인 남자가 신약성경을 공부하면서, 그가 막 신뢰하기 시작한 예수아에 대해 배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방문의 끝자락에서, 저는 대적이 헨리의 마음에서 복음의 씨앗을 빼앗고, 다시 의심과 혼란을 심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저는 이 전도를 철없는 흥분으로 시작했지만, 한 가지를 깨닫고 끝을 맺었습니다 - 바로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적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상대하는 것임을. 정말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을 위해서 계속하여 기도해야겠습니다!



몬트리올, 캐나다 Montreal, Canada

Karl de Souza: 최근에 저는 선교에 쓰일 뺨을 사기 위해 동네 자동차 영업소에서 견적을 받고 있었습니다. 딜러가 저에게 어느 회사에서 일하는지 물었을 때, 저는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이라는 종교 단체에 서 일하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딜러가 소리치더군요 “저는 유대인입니다!”

저는 우리 선교 단체가 무엇을 위해 일하는지 말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댄은 파키스탄에도 유대인들이 살고 있다는 사실에 놀랐고,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만났다는 것에도 놀랐습니다. 바로 그 전 주에 그의 전(前) 여자친구가 그에게 이메일을 보냈는데, 맨하탄에 있는 우리 선교 단체 건물의 사진을 첨부해서 보낸 것이지요. 그녀는 댄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한 번 궁금해서 보낸 것이었고, 지금 그의 바로 앞에 또 하나의 예수 믿는 유대인이 서 있는 것입니다. 댄은 이 만남을 그의 아버지에게 상세히 말해야겠다고 했습니다. 댄이 이 “우연”을 통해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주십시오.

2005년 몬트리올에서 열린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중에, 헬렌은 우리의 팀 멤버 중 한 명에게 연락처를 주었습니다. 저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헬렌과 연락하고 심지어 만나려고 계획도 세웠지만, 그녀는 영적 주제들에 대해 더 이상 관심을 갖지 않는 듯하였습니다. 최근에 헬렌은 저희 몬트리올 사무실에 다시 전화를 하였습니다. 직접 만나는 것과,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 관심을 다시 갖고 전화를 걸은 것이지요.



시드니, 호주 Sydney, Australia

Bob Mendelsohn: 우리는 매주 웹사이트를 설교 동영상, 뉴스, 주석, 그리고 특히 방문 강연 날짜들로 업데이트 시킵니다. 저희는 교회들과 성경 대학들에게 가서 방문 강연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몇 년 동안 유대인들이 개인적으로 여러 번 찾아와 우리의 강연을 들곤 했습니다.

그 중에 4년전에 찾아온 게리가 있습니다. 그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온 유대인인데, 우리 웹사이트를 통하여 제 일정을 알고, 강연을 들으러 왔었습니다. 저는 그와 계속하여 교제하였고, 성경 공부를 같이 하였으며, 기도하였습니다. 마침내 18개월 이후 그는 세례를 받고, 그의 아내가 출석하는 교회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대인인 대련이 제 시드니 교회 강연에 왔을때 게리가 생각나더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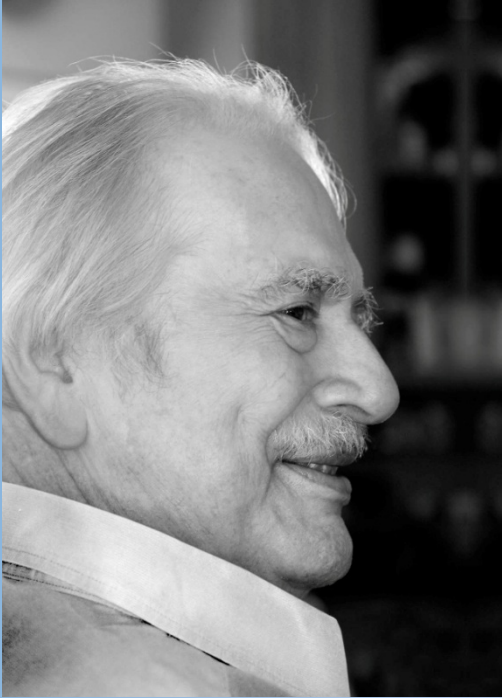
대련은 그의 한국인 여자친구를 데리고 왔었는데, 그녀는 독실한 기독교인이었습니다. 대련은 예수님을 막 알기 시작했는데, 그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도 모르는 초신자였습니다.

또 다른 이야기: 게빈과 그의 한국인 여자친구는 우리의 주간 성경공부를 매주 두 달 동안 나오고 있습니다. 게빈 또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유대인이지요. 놀랍지 않습니까? 아, 그리고 게빈이 첫 주에 나왔을 때, 그는 게리를 만나서 격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좋은 분이시지 않습니까?



Moishe의 사색들: “예수님을 섬기는 유대인들”의 설립자 Moishe Rosen의 생각들



유대교 회당들과 교회들의 관계, 랍비들과 목사들 사이의 관계를 보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랍비들은 당신이 복음주의적이지 않은 한, 기독교인들이 복음주의적인 것은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이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필요로 한다고 당신이 믿는 것은 괜찮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모든 이들에게 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고 믿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유대인들은 빼주십시오.

랍비들은 이에 대한 생각을 고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가르침, 위치 그리고 유대인들의 생존에 관한 헌신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생각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랍비들은, 그들이 할 수만 있었더라면, 기독교 신학을 다음과 같이 바꾸었을 것입니다 - 유대인들을 복음화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기독교인들은 묻습니다 - 만약 사람들이 복음을 거부하면, 즉 메시아에 대해서 듣기 싫어한다면, 왜 그들을 못 살게 굴어야 합니까? 그들이 알고 싶어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왜 말해야 합니까?

그러나 이 질문은 기독교 신학과 인간 본성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일하지 않으시면, 아무도 복음을 듣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하나님께 순종하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아무도 주님을 따라가고 싶어하지 않습니다. 모든 이들은 복음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자연적인 장애물을 갖고 있는데, 이는 복음이, 우리가 드리기 싫어하는 것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패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의 거룩한 임재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전하기를 두려워한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전하기를 두려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이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하나님 당신을 안다면, 한 번이라도 그 실체를 안다면, **그 분을 거부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유대인들(그리고 다른 이들도)이, 오직 예수님만이 줄 수 있는 그것들을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는지 기독교인들이 정말 안다면,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주님을 선포하는데 더 담대할 것입니다.

유대인 복음주의가 기독교의 마음과 영혼에 중요한 이유는 바로 각각의 기독교인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이들의 눈치를 보면서 행동하는지에 대한 선택에 직면하기 때문입니다.

원인은 항상 대립을 불러일으킵니다. 왕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오라고 하는 그 초대장은 또한 세상과 그의 가치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합니다. 우리는 그저 우리의 기독교인 친구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할 용기를 가지고, 예수님의 지상최대 명령을 따라서 모든 사람들을 제자로 삼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Jews For Jesus:
GPO Box 925, Sydney 2001 AUSTRALIA
호주 전화번호: +61.2.9388.0559
이메일: mail@jewsforjesus.org.au
홈페이지: jewsforjesus.org.au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이스라엘, 러시아,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크라이나, 미국 그리고 영국에
지부를 두고 있습니다.

후원계좌:
호주 NAB BSB 082.067 계좌번호 46.072.8465
뉴질랜드 BNZ.BSB 020.484 계좌번호 010.6273
싱가포르 OCBC 예금주: Jews For Jesus
계좌번호 581.252.897.001

PayPal, 신용카드 그리고 TT로도 후원을 받습니다.